

『제56회 방사선취급감독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시험 응시원서 접수

지난 10월 8일(월)부터 10월 12일(금)까지 수도권지역의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56회 방사선취급감독면허 및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시험의 원서교부 및 접수를 협회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310명(감독 281명, 특수 29명)이 접수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김세중) 주관으로 11월 4일(일)에 충북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시행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8시30분까지 입실하여 1교시 원자력관계법령, 2교시 방사선취급기술, 3교시 방사선장해방어, 4교시 원자력이론(특수: 의학 또는 치의학중 선택)을 치르게 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6일(목)부터 12월7일(금)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며 합격여부의 확인은 우리협회(☎02-3411-6494~6) 또는 ARS(대전,충남지역 700-1903, 기타지역 042-700-1903)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license.kins.re.kr>)를 이용하면 된다.

유 관 기 관 동 정

과학기술부

- 직제 개정 -

과학기술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상시감시 및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할 과를 신설하고, 일부 실·국간의 업무를 상호 조정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하였다.

이번 직제개정에서 기존의 2실 4국 3관 26과(300명)에서 2실 4국 3관 27과(304명)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원자력국에 원자력방재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원 4인(4급 1, 5급 2, 6급 1)을 증원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 '방사선검출기' 세미나 개최, 내달 20일까지 -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정책 연구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신과학산업 창출을 위한 '방사선검출기' 세미나를 10월11일(목)부터 11월20일(화) 까지 매주 1회씩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방사선 검출기, 가